

## 탁아소를 내오도록 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1945. 8. 15.) 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시었다.

1945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녀해방동맹의 한 일군을 만나시여 여성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의논하시었다. 그로부터 여성들이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어서 건국사업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결연하신 어조로 탁아소를 내와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었다.

뜻밖의 말씀에 두눈이 휘둥그래진 여성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었다.

여성들이 평등이라는 말만 하여서는 남성들과 평등하여질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평등권을 주었다고 하여 실지 평등하여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집구석에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되어 남성들과 같이 새 조국건설에 동원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자면 탁아소를 내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조선의 첫 탁아소가 태어났으며 그후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탁아소들이 일떠서 여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되었다.

오늘 조선에는 탁아소가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지구마다에 그리고 여성들의 일터가끼이에 꾸려져있으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